

해외건설 **INSIGHT**

2023 Vol.2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 지속가능금융의 개념과 최근 동향



I. 지속가능금융의 정의 및 종류

II.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

III. 시사점

붙임. 지속가능금융 인프라 프로젝트 연계 사례



1. 지속가능금융의 정의 및 종류	1
2.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	3
3. 시사점	8
붙임. 지속가능금융 인프라 프로젝트 연계 사례	12



- ▶ (검토 배경)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 이슈를 반영한 지속가능 금융의 정의 및 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건설에 적용되는 사례를 검토하여 기업들의 해외수주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속가능금융의 정의 및 종류

- ESG 원칙을 경제 개발, 투자 전략 등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공익적 외부 효과 등을 유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각종 금융 활동임
- 채권은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원칙을 준용하는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이 있으며, 대출은 LMA(대출시장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녹색대출, 사회적 대출, 지속가능연계대출 등이 있음

□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규모*는 '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2년에는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Refinitiv)

*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규모(억불) : '18, 2,727 → '19, 4,645 → '20, 9,169 → '21, 17,639 → '22, 14,278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성장률(%) : '19, 70.3 → '20, 97.4 → '21, 92.4 → '22, -19.1

- 글로벌 금융시장 내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비중*은 1% 내외로 크지 않으나 '18년 대비 0.7%p 증가함

* 글로벌 금융시장 내 지속가능금융 시장 비중(%) : '18, 0.2 → '19, 0.3 → '20, 0.6 → '21, 1.0 → '22, 0.9

- 지역별로 보면,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유럽(채권), 미주(대출) 등 선진시장의 비중*이 높음

* '22년 지역별 지속가능채권 시장 순위(%) : 1 유럽(52.4), 2 아-태(20.0), 3 미주(18.4), 4 일본(5.4), 5 중동·북아프리카(1.2)
'22년 지역별 지속가능대출 시장 순위(%) : 1 미주(38.8), 2 유럽(37.4), 3 아-태(18.3), 4 중동·북아프리카(3.2), 5 일본(2.4)

- 발행자 및 차주별로 보면,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상업은행(18.4%), 에너지 기업(13.6%), 비정부기관(13.4%), 정부기관(9.6%) 등 순이며, 지속가능대출의 경우 제조업(23.1%), 에너지(21.8%), 기타 금융(7.8%), 인프라(7.3%) 등 순임

o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시장 규모*는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추세와 비슷하게 '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Refinitiv)

* 한국 지속가능금융 시장 규모(억불) : '18, 78 → '19, 112 → '20, 129 → '21, 242 → '22, 236

한국 지속가능금융 시장 성장률(%) : '19, 43.6 → '20, 15.2 → '21, 87.6 → '22, -2.5

-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한국의 비중*은 1~2%대로 높지 않으며, '18년 대비 감소

*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한국 비중(%) '18, 2.9 → '19, 2.4 → '20, 1.4 → '21, 1.4 → '22, 1.7

- 발행자 및 차주별로 보면,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상업은행(23.8%), 에너지 기업(13.2%), 주택저당증권 관련 기업(6.3%), 제조업(6.0%) 등 순이며, 지속가능대출의 경우 상업금융(39.1%), 에너지 기업(34.3%), 기타 금융(12.0%), 제조업(10.9%) 등 순임

□ 시사점

-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규모는 각 통화당국의 높은 금리결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환경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 이용이 집중됨. 가격 메리트 등을 활용하여 타 인프라 분야(건물, 교통, 건설) 등 사용 주체 다양화 필요

I 지속가능금융의 정의 및 종류

□ 지속가능금융의 정의

- o (배경) 파리기후변화협약('16), COP26('21) 등 기후변화 대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 이슈를 포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
- 관련 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며 WB(세계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빈부격차 해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재원조달 범위 확대

- IMF ESG 분류기준 및 지속가능금융 범위 -



* 출처 : IMF, 유엔환경계획 등 자료 재구성

- o (의미) IMF에 따르면, 지속가능금융은 ESG 원칙을 경영 의사결정, 경제 개발 및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익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각종 금융 활동임

※ 참고 : 타 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정의

-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시장적 준비 및 금융 서비스·상품·프로세스 등을 의미(G20)
- ESG 이슈를 감안한 투자 및 금융활동이며, 환경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환경 관련 금융 역할을 녹색금융으로 규정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금융 역할은 지속가능금융으로 규정함(UNEP)
- 투자 결정 시 ESG 원칙을 고려하는 과정이며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를 증가시킬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ECO)

□ 지속가능금융의 종류

o 지속가능금융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겨난 다양한 상품 중 공신력이 높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승인되는 채권과 대출 상품을 나눠 제시함

- (채권)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원칙을 준용*하는 △녹색채권(기후채권 포함)(GB), △사회적 채권(SB),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SLBs)이 있음. 지속가능금융 중 GB가 가장 먼저 발행되었으며 규모가 가장 큼

* 2021년 기준, 1.01조불 중 0.99조불(약 98%)의 지속가능채권이 ICMA의 규정을 따라 발행되고 있음

- (대출) LMA(대출시장협회)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녹색 대출(GL), △사회적 대출(SL), △지속가능연계대출(SLLs) 등이 있음. 이 중 SLLs는 타 지속가능금융상품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발행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함

- 지속가능금융 적용범위 및 관련 금융상품 -



주) ICMA의 Sustainable Finance High-level definitions 및 LMA Sustainable lending guidelines를 기초로 작성함

* 출처 : ICMA, LMA 등 자료 재구성

※ 참고 : 지속가능연계금융상품(SLLB, SLLs 등)은 적용 범위에 따른 조달자금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고, 핵심성과목표(KPI),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PTs)1) 등 사전에 정의된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조건(금리 등)이 달라지는 성과연동형 금융상품임(ICMA 및 LMA)

1) SPTs 예시 : △탈탄소 궤적 준수, △ESG 관련 연3백만불의 투자, △시간손실 사고 빈도목표 준수(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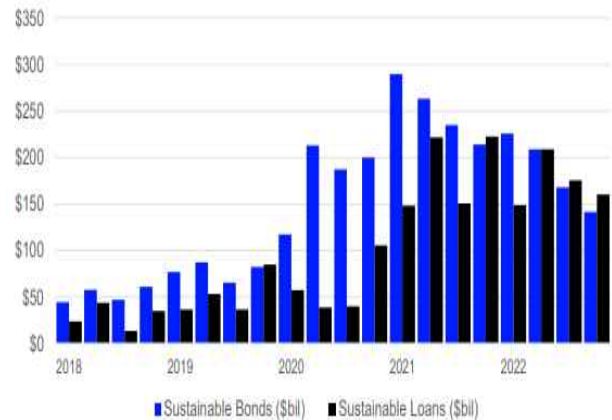
II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²⁾

□ 글로벌 동향

- 최근 5년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규모는 '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2년에는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Refinitiv)

- 최근 5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현황(좌) 및 비중(우) (단위 : 억불) -

구분	'18	'19	'20	'21	'22
채권	2,199	3,230	7,333	10,324	7,443
대출	528	1,415	1,836	7,315	6,934
합계	2,727	4,645	9,169	17,639	14,278
성장률 (%)	-	70.3	97.4	92.4	-19.1



주)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을 의미함

* 출처 : Refinitiv Datastream 통계자료 (검색일:2023.01.31.) 및 Refinitiv Sustainable finance review

- 글로벌 금융시장 내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비중*은 1% 내외로 크지 않으나 '18년 대비 0.7%p 증가함

* 글로벌 금융시장 내 지속가능금융 시장비중³⁾(%) : '18, 0.2 → '19, 0.3 → '20, 0.6 → '21, 1.0 → '22, 0.9

-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에서 지속가능채권의 비중*은 감소했으며, 지속가능대출의 비중*은 증가하였음

* 지속가능채권 비중(%) : '18, 80.6 → '19, 69.5 → '20, 80.0 → '21, 58.5 → '22, 51.8

지속가능대출 비중(%) : '18, 19.4 → '19, 30.5 → '20, 20.0 → '21, 41.5 → '22, 48.2

2) 글로벌 및 국내 동향은 동사가 발표한 Sustainable Finance Review 보고서의 내용과 글로벌 금융시장 데이터 업체인 Refinitiv의 금융정보 제공 플랫폼인 아이콘(Eikon)의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자료(검색일: 2023.01.31.)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3) 비중 식 : (글로벌 지속가능채권+ 글로벌 지속가능대출)/(글로벌 채권+글로벌 대출)

- '22년 기준, 지속가능채권 시장 내 비중은 녹색채권(52.4%), 지속가능채권(20.0%), 사회적채권(14.1%) 그 외 채권 등(5.1%) 순임
- '22년 기준, 지속가능대출 시장 내 비중은 지속가능연계대출(73.8%), 녹색대출(19.0%), 그 외 대출 등(7.1%) 순임

o (지역별)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유럽(채권), 미주(대출) 등 선진시장의 비중이 높음

- '22년 기준, 지속가능채권을 주로 발행하는 지역은 유럽(52.4%)이며 그 뒤는 아-태(20.0%), 미주(18.4%), 일본(5.4%), 중동·북아프리카(1.2%) 순임
- '22년 기준, 지속가능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은 미주(38.8%)이며 그 뒤는 유럽(37.4%), 아-태(18.3%), 중동·북아프리카(3.2%), 일본(2.4%) 순임

- '22년 지속가능채권 지역별 비중(좌) 및 지속가능대출 지역별 비중(우)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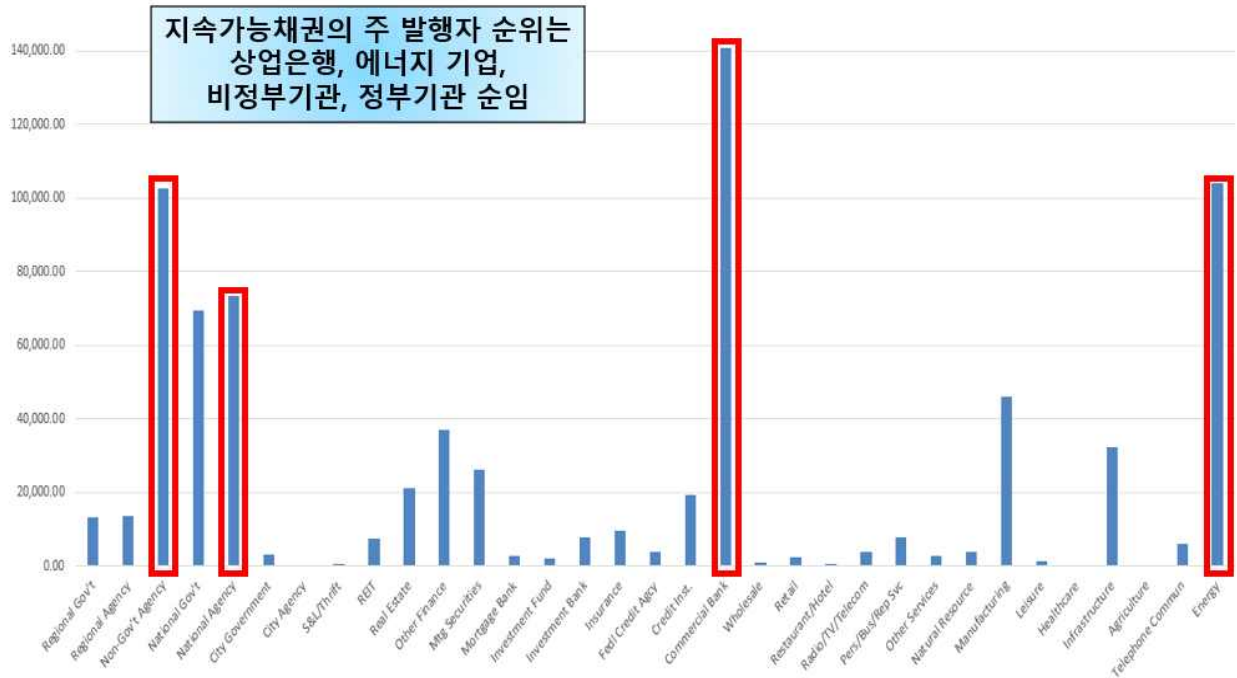


* 출처 : Sustainable Finance Review Full year 2022, Refinitiv

- o (발행자 및 차주별⁴⁾) 지속가능채권의 주 발행자는 상업은행(18.4%)이며 그 뒤는 에너지 기업(13.6%), 비정부기관(13.4%), 정부기관(9.6%) 등 순임. 지속가능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는 제조업(23.1%)이며 그 뒤는 에너지(21.8%), SPC 등 기타 금융 관련 회사(7.8%), 인프라(7.3%) 등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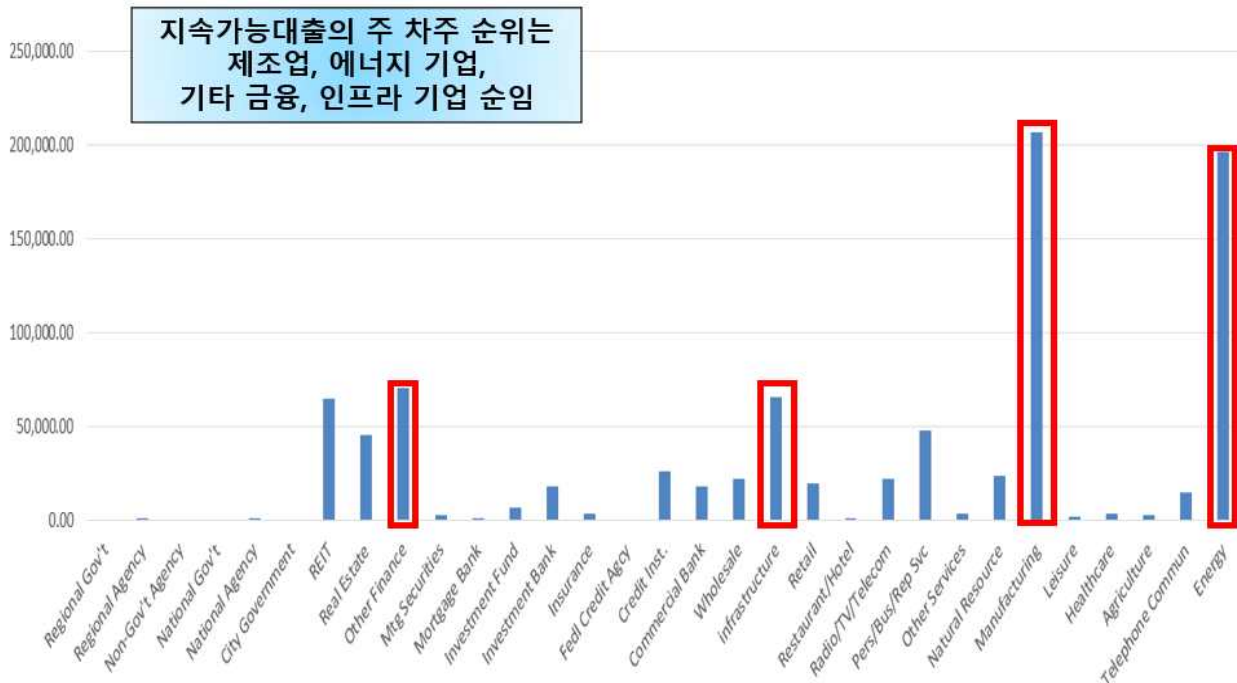
4) 에너지는 유틸리티, 전기 서비스, 송배전, 발전 등의 합이며, 인프라는 건설, 교통, 건물, 상하수도 등의 합임

- / 22년 지속가능채권 산업별 주 발행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 출처 : Refinitiv Datastream 통계자료 (검색일:2023.01.31.) 및 Refinitiv Sustainable finance review

- / 22년 지속가능대출 산업별 주 차주 현황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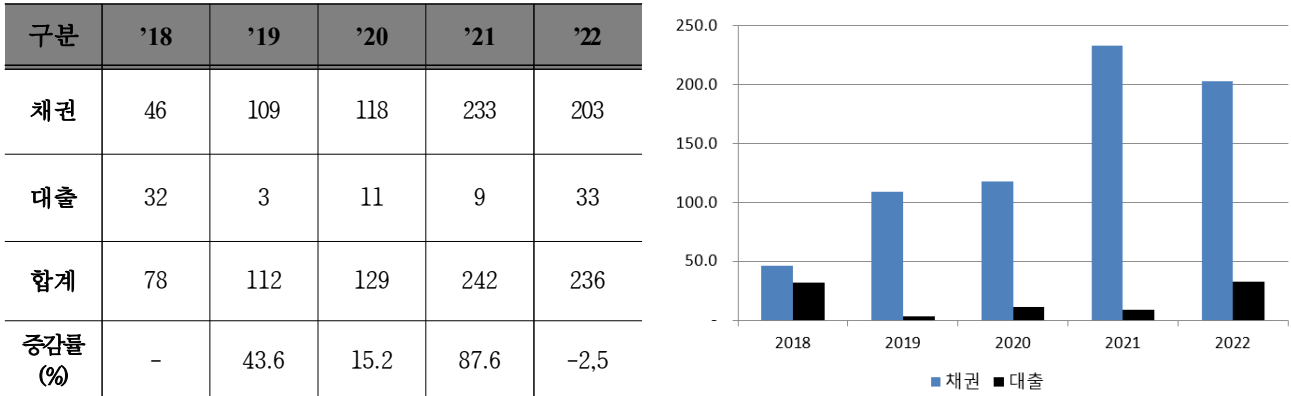


* 출처 : Refinitiv Datastream 통계자료 (검색일:2023.01.31.) 및 Refinitiv Sustainable finance review

□ 국내 동향

- o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시장 규모는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과 비슷한 추세로 '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Refinitiv)

- 최근 5년 한국 지속가능금융 시장 현황(좌) 및 그래프(우) (단위 : 억불) -



* 출처 : Refinitiv Datastream 통계자료 (검색일:2023.01.31.) 및 Refinitiv Sustainable finance review

- o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한국 비중은 1~2%대로 높지 않으며, '18년 대비 감소*함

*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한국 비중5(%) : '18, 2.9 → '19, 2.4 → '20, 1.4 → '21, 1.4 → '22, 1.7

- 한국 지속가능금융 시장에서 지속가능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0~90%대로 글로벌 추세와는 다르게 비중*이 높음

* 지속가능채권 비중(%) : '18, 59.0 → '19, 97.3 → '20, 91.5 → '21, 96.3 → '22, 86.0

- (채권) '22년 기준, 지속가능 채권의 총 발행 건수는 16건(202억불)으로 주 발행자는 상업금융(23.8%)이며 그 뒤는 에너지 기업(13.2%), 주택저당증권 관련 기업(6.3%), 제조업(6.0%) 순이며 인프라는 1.3%임
- (대출) '22년 기준, 지속가능대출 총 실행 건수는 11건(33억불)으로 주 차주는 상업금융(39.1%), 에너지 기업(34.3%), 기타 금융(12.0%), 제조업(10.9%) 순이며, 인프라는 0%임

5) 비중 식 : (한국 지속가능채권+한국 지속가능대출/글로벌 지속가능채권+글로벌 지속가능대출)

o (발행 내역) '22년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주요 발행 내역* 등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 등 인프라 기업의 지속가능금융 프로젝트 연계사례는 <붙임.1> 참조

- / 22년 주요 지속가능채권 발행 내역 (단위 : 억불) -

발행자명	종류	금액	사용 목적	발행일
수출입은행	녹색채권	30	- 국내기업의 해외 '그린뉴딜' 프로젝트 진출 목적 자금지원	22.01.05
수출입은행	녹색채권	15.9	- 유럽지역 신재생에너지 및 이차전지 생산시설사업 자금지원	22.05.17
한국전력	녹색채권	7.9	- 국내외 신재생 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연계설비 확충, 에너지 효율화 등	22.06.07
한국전력	녹색채권	7.9	- 상기 사용목적과 동일함	22.09.29
한화생명	지속가능채권	7.5	- 태양광 셀·모듈 생산라인 증설, 대기오염 방지, 친환경 건축물 건립 등 투자 재원	22.01.24

* 출처: Refinitiv, 각사 IR 자료, 언론사 등 종합

- / 22년 주요 지속가능대출 실행 내역 (단위 : 억불) -

발행자명	종류	금액	사용 목적	실행일
전남 해상풍력	-	4.7	- 전남 해상풍력(SPC*) PF 재원조달 *SK E&S,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등 합작	22.12.22
신한은행	지속가능연계대출	4	- ESG경영지표 개선 목적 사용	22.09.07
SK 지오센트릭	지속가능연계대출	3.6	- 울산 플라스틱 리사이클 클러스터 건설 등 ESG 사업 확대 목적	22.11.15

* 출처: Refinitiv, 각사 IR 자료, 언론사 등 종합

III 시사점

□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규모는 각 통화당국의 높은 금리결정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일시적 감소)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규모는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각 통화당국의 높은 금리결정 등으로 인해 '22년 일시적으로 감소함

* 각 통화당국의 높은 금리결정 등에 따른 유동성 감소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거래 흐름이 둔화('22.10.24, Refinitiv)

- 최근 5년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현황(좌, 억불) 및 그래프(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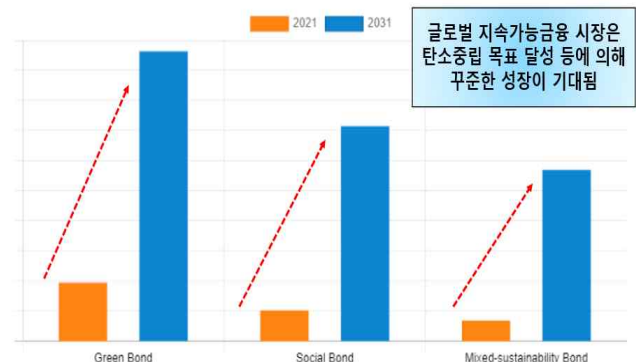
*출처 : Reuter(2022.10) 및 Sustainable finance Review(2022.12)

○ (꾸준한 성장 기대)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녹색 에너지 사업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심 확대 등에 의해 꾸준한 성장이 기대*됨

* 미국 시장조사회사 얼라이드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규모는 '31년까지 연평균 20.1% 성장하여 22조 4856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투자은행의 지속가능금융 제공목표(좌) 및 지속가능금융 시장 성장 전망(우) -

금융기관	목표
JP모건	2.5조불(~'30)
바클레이스	1조불(~'30)
HSBC	1조불(~'30)
BNP Paribas	3,500억 유로(~'25)



*출처 : ESG경제(2022.12) 및 Allied Market Research(2022.09)

□ 환경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 이용이 집중됨. 가격 메리트 등을 활용하여 타 인프라 기업 등 사용 주체 다양화 필요

o (환경 분야 중요성) 파리협정 발효 및 각종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녹색 경제 구축 등의 목적으로 지속가능금융 비중이 증가*하는 등 동 금융 사용이 증가했으나 전 세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선 추가 자금조달이 불가피*

* 글로벌 금융시장 내 지속가능금융 시장비중(%) : '18, 0.2 → '19, 0.3 → '20, 0.6 → '21, 1.0 → '22, 0.9

* Refinitiv가 인용한 FTSE러셀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 기온 상승 1.5℃ 제한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미화 109-275조 달러가 필요

- 기온 상승 1.5℃ 제한을 위한 추정 필요자금(좌, 조별) 및 지속가능금융 시장 비중 현황(우) -

근거	필요자금(~'30)	필요자금(~'50)
GFANZ	32	125
IEA	50	136
IIGCC	51	150
IRENA	57	131
맥킨지	81	275
NGFS	38	109



주) GFANZ : 글래스코 넷제로 금융연합, IEA : 국제에너지기구, IIGCC : 기후변화 아시아 투자자그룹, IRENA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NGFS : 녹색금융 관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협의체

*출처 : FTSE Russel(2022) 및 Refinitiv Datastream 통계자료 (검색일:2023.01.31.)

o (가격 메리트 활용) 지속가능채권*과는 달리 금리 인상 여파에도 ESG 성과에 따라 금리 감면 혜택을 받는 지속가능 연계대출** (본문 2p 참고)을 이용하여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원으로 활용 가능

* 기업들은 회사채를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해 그리니엄® 등 메리트를 이용해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봤으나, 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음('22.09.29, 그린포스트코리아)

- ** 한국의 지속가능 연계대출 금리 혜택 사례 -

- (SK 지오센트릭) 외부ESG 경영목표인 플라스틱 재활용 규모증대(~'25, 90만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25, '19년 대비 24.9% 감축) 달성 시 금리 감면
- (신한은행) 외부평가기관(Sustainalytics)이 산출한 신한금융지주 ESG 경영 점수를 KPI로 지정, 연도별 개선 목표 달성 시 차입금리 연 0.05% 감면
- (대한상의·기온) ESG 경영 목표를 세운 중소기업에 최대 1%p 금리를 낮추는 대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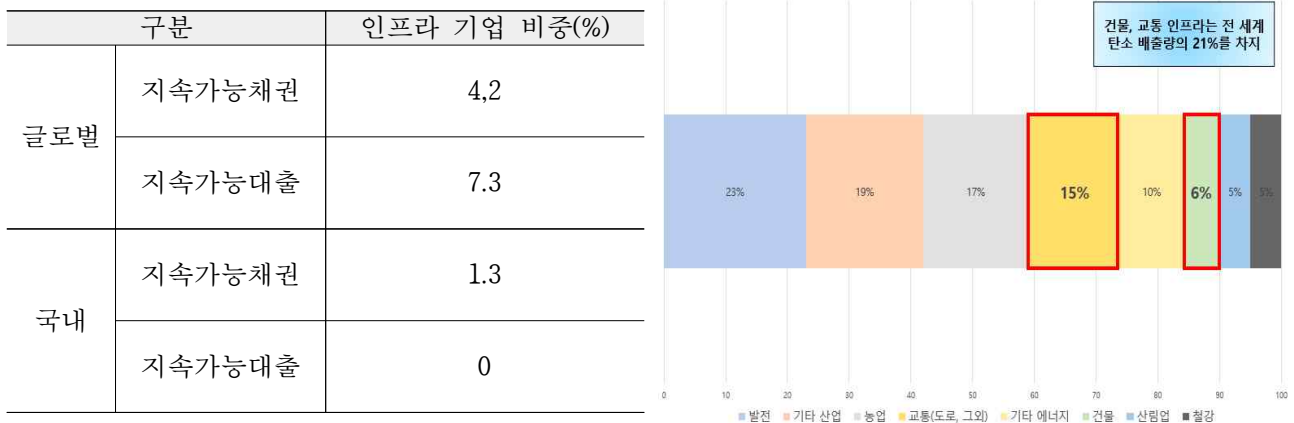
*출처 : 언론기사, IR자료, 대한상의 홈페이지

6) 그리니엄은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로 녹색 채권의 차입금리가 일반채권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발행자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함 (여밀림, 2022) ESG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녹색 채권의 가치가 일반채권에 비해 높다고 보고 녹색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채권 가격 상승 → 채권 금리 하락)관계이기 때문에 녹색 채권 수요가 높아지면 회사들은 발행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함

o (사용 주체 다양화) 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지속가능금융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법정 목표***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해 건물, 교통, 건설 등 에너지외 인프라 관련 기업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관심 제고 및 자금조달 고려

***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 등에 의거, 국토부의 건물·교통·건설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및 관련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확대

- '22년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인프라 기업 비중(좌) 및 '19년 섹터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우) -



주) 인프라 기업 범위 : 건물, 교통, 건설, 상하수도 등

*출처 : Refinitiv Datastream 통계자료 (검색일:2023.01.31.) 및 IEA 등(2022)



- 국문 자료

국무조정실. 2022. [보도자료]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고시) 시행
대한상의. 2022. ‘대한상의-IBK기업은행’ ESG 지속가능성연계대출 신청 안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2. 최근 해운업계에 증가하는 대출유형은? -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이상현. 2022. 지속가능금융의 의의와 통계 현황
안지연 등. 2021.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여밀림. 2022. 녹색채권 발행의 최근 동향과 그리니엄 감소 현상

- 영문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2022. Sustainable Finance Market Research, 2031
EC. 2022. The EU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FTSE Russell. 2022. Green equity exposure in a 1.5° C scenario
IMF. 2019-2022.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CMA. 2018. The Green Bond Principles 등
ICMA. 2020. Sustainable Finance High-level definitions
ICMA. 2021. Sustainable bonds based on GBP, SBP, SBG and SLBP in 2021
IEA, IRENA. 2022. The Breakthrough Agenda Report
LMA. 2021. Guidance on Green Loan Principles 등
Refinitiv. 2019-2022. Sustainable Finance Review(1Q~4Q)
Refinitiv. 2022. Sustainable Finance Bond Definitions
Refinitiv. 2022. Sustainable Finance sees cautious retreat amid wider volatility
UNEP. 2016. Definitions and concepts : Background Note

- 언론 기사

그린포스트코리아. 2022. ESG 채권 쪼그라든다...“국고채 금리 상승, 기업 메리트 부족” 영향
무역협회. 2022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銀, 15억 유로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신한은행. 2022. 신한은행 2021-2022 ESG 보고서
인포스타데일리. 2022. [지속가능] 김동원 한화생명, 투자 자산에 ESG 요소 포함
연합뉴스. 2022. 한국전력, 8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경제. 2022. 수출입은행 30억달러 외화채 발행...국내기관 최대규모
한화생명.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경제. 2022. 바클레이즈, ‘지속가능금융’ 목표 크게 늘려
Pulse. 2022. SK E&S to build 99-MW offshore wind farm off southeastern coast in Korea
SK Innovation. 2022. SK지오센트릭 친환경 비전 통했다... 글로벌은행 ‘지속가능연계차입’ 4,750억원 조달

- 데이터베이스

Refinitiv Eikon(舊 Thompson Reuters) (<https://workspace.refinitiv.com>)

붙임

지속가능금융 인프라 프로젝트 연계 사례

- o 국내·외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업 지분투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개발 및 수주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속가능금융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 연계 사례 -

기업명	주요 사례
SK 에코플랜트	- 태양광발전소 등 건설 및 미국 연료전지회사(블룸에너지)와 합작회사 설립자금 사용,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및 1억9000만불 녹색대출 자금 할당
(주)한양	-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관련 SPC인 광양그린에너지 증자, 200억 규모 녹색채권
삼성물산	- 각종 친환경건축물 건설 등, 2,000억원 규모 지속가능채권 발행자금 할당
DL이앤씨	- 국내 친환경 인프라 등 건설 및 중국 수처리 산업 투자 등 1,700억원 규모 지속가능 채권 발행자금 할당

* 출처 : 각사 IR 자료, 언론기사 취합

- 지속가능금융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연계 사례 -

기업명	주요 사례
ENGIE(프랑스)	- 북미, 남미 및 유럽 내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및 해외 에너지 기업 인수 등, 18억 유로 규모 녹색 채권의 발행자금 할당('20.3, '20.11, '21.7월 합계)
Enel SpA(이태리)	- Rattlesnake Creek 풍력발전 프로젝트(Facebook, Adobe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 공급원), 226억불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자금 할당
Interchile S.A(칠레)	- Cardones-Polpaico 송전선 건설프로젝트 리파이닝, 12억불 규모 녹색 채권의 발행자금 할당

* 출처 : Refinitiv, 각사 IR 자료, 언론기사 취합